

◆ 05-9평 43~47번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찰찰하신* 노(老)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어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우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어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곁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회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

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즐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花壇) -

*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손아(孫兒): 손주를 일컫는 말.

*** 벌벌: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 채반(-盤): 껍질을 벗긴 짜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⑤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4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 | | | |
|----------|---|-------------|
| ① 일삼아 | - | 뜻하던 일은 못 하고 |
| ② 이정거릴 | - | 주의 깊게 살필 |
| ③ 순조로 | - | 세차게 |
| ④ 약이 오르고 | - | 은근히 화가 나고 |
| ⑤ 안손님 | - | 여자 손님 |

4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점]

- 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 ②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
- ③ 자신을 망치는 것은 욕심이다.
- ④ 인생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 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작품을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6번, 47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들렀으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현사토 현사할사.**
 산중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퍼진 경치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매화 창 아침 별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옹(仙翁)의 하실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쪽에 외씨를 뿌려 두고
 김 매거니 북 주거니 빗길에 손질하니,
 청문(靑門) 고사***를 이제도 있다 할까?
 망혜(芒鞋)를 죄어 신고 죽장(竹杖)을 흔들으니
 도화(桃花) 핀 시냇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어 있다.
 잘 닦은 명경(明鏡) 중에 그림 같은 돌 병풍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源)은 어디인가?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 천손운금(天孫雲錦):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으로, 은하수를 가리킴.
- ** 현사토 현사할사: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다는 뜻.
- *** 청문(靑門) 고사: 중국 한나라 때 소평(鄜平)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
- **** 방초주(芳草洲):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 섬.

- ④ 강산풍월(江山風月) 다 거닐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내니, 창(窓) 밧긔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어세라. 꺾듯 냉담(冷淡)한 디 암향(暗香)은 무스 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버마터 빗쳐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46.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으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 ① ㉠ 간호 ② ㉡ 기적 ③ ㉢ 비방
- ④ ㉣ 재공 ⑤ ㉤ 일고지혜

47. <보기>의 화자가 '선옹(仙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위 글의 '노인'에게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무상(無常)흔 이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맞논을 다 무겨 더더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 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혀 부러 말렸노라.
- ② 봉(峰)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뭍디 마나, 더 기운 호터 내야 인걸(人傑)을 뉘들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 ③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켜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넌가, 붓으로 그려넌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21 ~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데
 최령(最靈)호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끈게 선 자태 고결 적이 업는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호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귀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귀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깃털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츠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돌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니 내 어찌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흐 골에 삼긴 대로 늘그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 최령호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 직립불의: 꿋꿋이 섬.
-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 탁연직립: 빼어나 끈게 섬.
-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굴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뭉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 하다.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는데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흙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교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찾중 하나, 슬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뜨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윤(德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 있다. 「서장(書狀)」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회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체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막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급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업적이어서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고완」 -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 사란: 여러 개의 글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 도일: 세월을 보냄.
-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찾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테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05-6평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 매직펜은 매직잉크가 든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文房具)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특별한 ㉠ 수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펜은 ㉡ 누가 긋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筆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붓은 결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약손같이 부드러운 감촉이, 수줍은 듯 은근한 그 묵향(墨香)이, 묵의 깊이가 좋습니다. 추호(秋毫)처럼 가는 획에서 필관(筆管)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피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 줍니다. 붓은 좀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매직펜이 실용과 편의라는 서양적 사고의 산물이라면 붓은 동양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버릇집 속에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긍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糊塗)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 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派黨性)이 도리어 ‘시중(時中)’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本道)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붓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있어서 붓은 단순한 취미나 여기(餘技)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영복, 매직펜과 붓 -

(나)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몰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글씨의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17. ㉠~㉥ 중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8. ㉡의 ‘누(구)’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1점]

- 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할래?
- ③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 ④ 그에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 ⑤ 누구든 나한테 한 명만 보내 줄래?

19. (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중간 노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도덕을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는 회색에 속한다. 타협이 있어야 한다.
- ②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은 그저 중간일 뿐이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줄 아는 절도에 삶의 본질이 있다.
- ③ 우리는 각자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있다. 인간은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식의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 ④ 세상에는 가끔 편견과 인습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 한다. 편견과 인습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인간이 극단적인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두 극단에 도달하여 그 중간을 모두 채움으로써 인간은 위대해지는 것이다.

◆ 94 수능(1차) 47~50번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길을 걷기를 좋아한다. 산길도 좋아하지만 십 리 밖까지 멀리 보이는 들판 길을 더욱 좋아한다. ㉠ 만일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아스팔트 포장 도로보다 나는 흙 길을 택한다.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나는 포플러가 늘어선 교회의 풍경화보다 더 멋있는 그림을 나의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다. 게다가 수천 년 동안 내 선조들이 남쪽에서 옮겨다 놓은 흙과 북쪽에서 옮겨다 놓은 흙을 생각할 수 있어 즐겁다. 적어도 한반도의 흙이 사람들의 발에 묻어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옮겨지고 골고루 섞일 수 있었던 그 옛날은 지금 보다 행복했었을지 모른다.

(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교통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였으나 교통로변에 살 터를 잡기를 꺼렸다. 물가에 사는 사람은 상놈이기 쉽고 길가에 사는 사람도 상놈 대접을 받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류 계급은 물론 일반 농민들조차 ㉠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터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이 교통로변에 거주하기를 피한 이유는 도로가 전염병과 잡귀의 통로이며, 또한 미풍 양속을 해칠만한 부도덕한 일들이 전파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 동양의 길, 즉 한국 말의 '길'과 한자의 '도(道)'는 서양의 '로드(road)'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길은 통로, 방향, 순환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 형이상학적 개념인 이성, 도덕 등을 의미하며 행정 구역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하다', '말 타고 가다' 등의 뜻을 가진 서양의 길에 대한 개념 속에는 물질을 획득하기 위하여 ㉢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경쟁 심리가 숨어 있다. 서양 사회에서의 길의 의미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귀소 본능(歸巢本能)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일단 살 장소를 택하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른바 '장소에 집착하는 관습'을 가진 동양 사회의 특성은 수백 년 또는 천 년 이상 된 동족촌(同族村)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습속을 갖게 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수난을 당하면서도 삶의 근거지를 지키며, 일시적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에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려고 한다.

(마) 그런데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길에 대하여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도구,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제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 법칙에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

47. (가)~(마)에서, 길에 대한 세계관을 대조하고 있는 문단을 고른 것은?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나), (마)
 - ④ (다), (라)
 - ⑤ (다), (마)

48. (가)~(마) 중, 우리의 민족적 당면 과제를 길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49. ㉠~㉤ 중, (가)의 ㉡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0. (마)의 속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 ① 순응하는
 - ② 순종하는
 - ③ 적응하는
 - ④ 동화하는
 - ⑤ 복종하는

◆ 20 경찰대 1차 22~27번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통 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①높거나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다.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 버린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림은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표피적인 열림이다. 한눈에 드러난다는 것, 또는 한눈에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이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당한 형벌이다. 요즘에 읽은 한 소설가의 소설 속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옥상 위의 물탱크 속에 들어가 숨음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끔찍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탱크는 밖에서는 열 수 있으나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평면 위에서 대번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물과 인간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 없다. 두께나 깊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이다.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판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로의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

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 주는 것인지. 그곳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도 굉장한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들이어서, 쓰임새 있는 것에만 둘러싸여 살던 우리를 쓰임새의 세계에서 안 쓰임새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화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미워서, 어렸을 때에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 낮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매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이윽고 밖으로 나와 때로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은 컴컴하나 안은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세계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간직해야 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철학자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지하실과 다락방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식집의 부엌이다. 내가 태어난 시골의 내 외갓집 부엌은, 그 집이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꽤 넓었다. 그 부엌에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부엌을 건너 질러가면, 외할아버지가 친손자들에게만 주려고 외손자들에게는 접근을 막은 단감나무, 대추나무들이 있었다.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부엌 바닥은 한없이 깊고 컴컴했고, 누룽지를 넣어 둔 찬장은 한없이 높고 높았다. 그 부엌을 나는 한 달 전에 두 사람의 시인과 함께 놀러 간 어떤 절에서 다시 보았다. 그때의 그 즐거움!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아름다운 산문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렇다.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우물과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그 비밀이 있을 수 없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파트에는 없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 스물두 평 서른두 평의 평면 위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인가.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2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을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견해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서술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23. 윗글에서 **아파트**와 **땅집**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아파트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아파트에서는 삶이 입체적이지 않은 반면, 땅집에서는 삶이 입체적이다.
- ③ 아파트는 한 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땅집은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는 곳이다.
- ④ 땅집이 아파트에 비해 아름다운 것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땅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24. 글쓴이가 느끼는 ‘땅집의 삶’의 매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낮설지만 흥미로운 것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② 익숙한 쓰임새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③ 해질 녘에 있음과 없음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 ④ 하찮은 것들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 준다.
- ⑤ 컴컴한 바깥의 어둠과 전깃불로 눈처럼 환한 안쪽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25.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땅집**과 다른 것은?

<보 기>

‘땅집’은 ‘장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땅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다.

- ① 은수저
- ② 산패지
- ③ 가로등
- ④ 북극곰
- ⑤ 섬마을

26.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마당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집들 옆에 골목길이 있는 단독주택들을 대신해서 복도와 계단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골목길의 공간적 성격도 달라졌다.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들이 사람들이 느리게 사용하던 골목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골목길은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 ① 빠른 자동차 세상에도 출구 없는 골목길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야.
- ② 외국의 큰길들에 비해 한국의 골목길은 너무 좁아. 이제는 우리 길도 더 넓어져야 할 때가 왔어.
- ③ 골목길도 사라지고 주거 문화도 변하고 있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
- ④ 비좁은 골목길은 자동차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야. 단독주택들과 골목길은 한시바빠 사라져야 해.
- ⑤ 동네 주민들이 일하고 이야기 나누던 골목길은 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야.

27. <보기>를 참조할 때 반의어의 유형이 ㉠과 다른 것은?

—<보 기>—

국어의 등급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넓지도 좁지도 않다.’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상보 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① 살다-죽다
- ② 춥다-덥다
- ③ 좋다-싫다
- ④ 크다-작다
- ⑤ 빠르다-느리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여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염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A]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단.”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팔을 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친할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탕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
 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르니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
 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
 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13.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점]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간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는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한다.
- ⑤ ‘아버지’가 점심을 받는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소에(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필루? 밭에 가 절하구 눈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양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제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앉어 소출은 팔아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가꾸는 텐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인 셤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왜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약품비료(藥品肥料))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흠뻑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분위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기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家業)을 이어가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너너루서 발전헐 길을 열었구, 그제 또 모리지배(謀利之輩)*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仁術)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우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 말했지만 너무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앉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때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열말 팔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림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노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루 태났던 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발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질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올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러구 네 모(母)가 먼저 가면 내가 물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친만은 내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림.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흠족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쫓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허었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허게 생각되었고, 아버지 [A]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隔離)되는 일종의 결별(訣別)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遺言)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 중략 >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만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굽으로도, 가운데굽으로도 끝엿굽으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쭈우쭈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반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환경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반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반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 이태준, 돌다리 -

*모리지배(謀利之輩) :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전장 : 개인이 소유하는 논과 밭.

1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점점 고조된다.
- ②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물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장을 통해 사건을 간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④ 우연적인 요소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⑤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위 글의 작가와 대답을 하였다고 할 때, 작가가 말할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학생 :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점은 무엇인지요?

작가 : _____

- ① 땅의 가치, 그것은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② 땅과 인간,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나옵니다.
- ③ 소중한 땅,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 ④ 땅의 소유, 농민에게는 많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 ⑤ 마음의 땅, 우리가 돌아갈 미래의 보금자리입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토의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잘못 이해한 학생은? [3점]

— <보 기> —

이태준에게 소설이란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세계로 정교하고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태준이 구사하고 있는 심미적 장치의 본질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세계 인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아이러니이다. 즉 어떤 인물이 상대 인물을 경의(敬畏)하고 동경(憧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 ① 회수 : 창섭이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신념과 논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 ② 성구 : 그렇다면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창섭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겠네.
- ③ 태민 : 글썄, 창섭이는 아버지의 세계를 단지 그것 자체로 훌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야.
- ④ 호재 : 아무튼 창섭이가 아버지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 ⑤ 형식 :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섭이가 자신의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18.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가 남길 유언(遺言)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 땅을 절대로 처분하지 말아라.
- ② 내가 죽은 뒤에 네 뜻대로 하여라.
- ③ 이 땅은 농사지를 사람이 가지게 하여라.
- ④ 네 어머니 뭍이니 네 어머니 뜻에 따르거라.
- ⑤ 내가 남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라.

19. 위 글에서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 뜻이야 앓을소냐.
- ②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매거든 네 눈 좀 매어주마.
울 길에 뽕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③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 ④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앓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한 번의 매물은 후면 고쳐 씻기 어려우리.
- ⑤ 까마귀 겁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
아마도 걸 회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 18 수능 43~45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루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옳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툇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더라고 **귀땀**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

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 뜸— 뜸부기 짝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땀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어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위도** 모기가 떼배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밭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름**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 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렇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험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뉘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면.”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붓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무등 타기와 습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라 단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돌턴: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훑던.
- * 콩노긋: 콩의 꽃.
- * 자마구: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된서리.
- * 감못하기도: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기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